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이코노미스트

1주차	일시	2026년 4월 8일 : 학술정보관 6층 회의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윤서희(2331029)	O
		함민서(2671298)	O
		김시우(2691017)	O
진도	도서명: 이코노미스트 2026 세계대전망	진도페이지: 17 p. ~ 104 p.	
토론 내용			
	<p>[좌측부터 함민서, 윤서희, 김시우]</p> <p>서희-비즈니스, 민서-리더스, 시우-국제로 각 파트를 배분하고, 각자 맡은 파트에서 토론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p> <p>Q1. [리더스]-AI 붐이 꺼지면 경기 침체가 올까? 함민서: 아니다. 주식 하락의 영향으로 소비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으나, 이것이 경제 침체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김시우: 동의한다. 어차피 AI 붐은 꺼질 일이 없을 것이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성장하면 됐지, 침체를 가져올 만한 상황을 동반하지는 않을 것이다. 윤서희: 동의한다. AI는 '붐'에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시대를 바꿔놓을 도구이다. AI와 경제 침체는 다소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p> <p>Q2. [국제]-파리협정에 따른 지구온난화 방지, 가능한가? 함민서: 불가능하다. 모든 문제는 닦쳐야 해결해왔다. 현 시대는 경각심이 부족하다. 사소한 노력에 힘쓰는 것도 좋지만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김시우: 동의한다. 당장의 기술력으로는 지구온난화를 막을 좋은 방안을 만들지 못한다. 윤서희: 동의한다. 세계적인 협의나 노력 조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어려울 것이다.</p> <p>Q3. [비즈니스]-중국은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을까? 윤서희: 될 수 있다. 오히려 제재 속이기 때문에 자력 성장에 불을 붙일 것이다. 큰 산업 규모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함민서: 가능하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 줄 것이다. 김시우: 동의한다. 아직 미국과의 격차가 크지만, 중국이 뒤쳐지는 것은 아니다. 아직 성장 중에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가능하다.</p>		

일시	2026년 5월 10일 : ZOOM을 이용한 비대면 토론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윤서희(2331029)	O
	함민서(2671298)	O
	김시우(2691017)	O
진도	도서명: 이코노미스트 2026 세계 대전망	진도페이지: 177 p. ~ 268p.



[좌측부터 김시우, 함민서, 윤서희]

2주차

토론 내용

영국 브렉시트와 유럽연합 재가입 가능성, 미국이 자국 중심주의를 강화하며 국제적 책임과 지원을 축소할 경우, 국제사회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인가, 아니면 각국이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인가?, 미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 심화는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할까?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유럽연합 재가입 가능성을 시작으로 세계 경제 질서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서희님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 성장 둔화와 무역 장벽 증가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재가입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었다. 반면 시우님은 국가 주권과 독립성을 중요하게 보는 시각에서는 재가입이 쉽지 않을 것이며, 재가입 시 조건도 더 까다로울 것이며 부분복귀 정도가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미국이 자국 중심주의를 강화하며 국제적 책임과 지원을 축소할 경우, 국제사회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민서님이 특히 안보와 무역 질서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큰 만큼 동맹국들의 혼란과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각국의 자립 역량 강화와 다극화 체제 형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어 미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 심화가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수록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경제와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시	2026년 5월 20일 : 연구관 524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윤서희(2331029)	O
		함민서(2671298)	O
		김시우(2691017)	O
진도	도서명: 이코노미스트 2026 세계 대전망	진도페이지: 109p. ~ 172p.	
3주차	<div data-bbox="525 607 1455 1088"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교수님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으나, 깜빡하고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p> </div> <p>서희-금융, 민서-과학기술, 시우-문화로 각 파트를 배분하고, 각자 맡은 파트에서 토론 주제 2개씩을 선정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p> <p>금융 파트는 "EU가 미국과 중국에 맞서 글로벌 무역 질서를 이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 "중국의 통화 스와프 확대와 디지털 화폐 시스템 구축은 달러 중심의 글로벌 결제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가?" 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토론 주제에서 시우님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될수록 강력한 규칙과 규범을 제정할 수 있는 EU 고유의 '규제 권력'의 필요성과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중재자 역할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또한 서희님은 두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하여 중국의 구체적인 결제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강력한 자본 통제 때문에 위안화가 안전자산으로서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고, 이에 대하여 교수님이 기축통화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주셨다.</p> <p>과학기술 파트는 "비만 치료제의 대중화는 의료 혁신인가, 외모 중심 사회의 강화인가?", "AI 발전 속도는 규제보다 빨라야 하는가, 아니면 규제가 먼저여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민서님이 비만 치료제에 대하여 비만 치료제로서의 약물의 기능성과 효과를 근거로 의료혁신을 주장했으며 현 2030세대의 불법 처방에 설명해주시어 외모중심사회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다.</p> <p>문화파트는 "와인을 비롯하여 주류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는 이유는? 이는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한국에서도 술 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왜일까?)"</p> <p>"AI로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vs아니다/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연주곡에 거부감이있다vs없다" 로 토론을 진행했다. 서희님이 실제로 AI 음악 생성 프로그램 SUNO 사용경험을 말해주시며 거부감은 없지만 창작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교수님이 AI가 만든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보여주시며 먼미래에 AI가 고도발전되었을 때의 사회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주셨다.</p>		
토론 내용			

	일시	2026년 5월 28일 : 연구관 524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윤서희(2331029)	O
		함민서(2671298)	O
		김시우(2691017)	O
	진도	도서명: 이코노미스트 2026 세계대전망	진도페이지: p. 297 ~ p. 340
4주차	토론 내용	<div data-bbox="660 607 1323 1088"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687 1106 1295 1140">[좌측부터 윤서희, 김시우, 함민서, 이강신 교수님]</p> <p data-bbox="493 1191 1490 1258">서희-아시아, 민서-아프리카, 시우-중국으로 파트를 배분하고, 각자 맡은 파트에서 토론 주제 2개씩을 선정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p> <p data-bbox="493 1267 1490 1603">먼저 아프리카 파트에서는 “1. 해외 원조 축소는 개발도상국의 자립을 촉진하는가, 오히려 빈곤을 심화시키는가?, 2.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지원은 ‘도덕적 책임’인가, 아니면 ‘국가 이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첫번째 토론 주제에 대해 시우님과 민서님은 자립을 촉진 시킨다는 입장이었고, 나는 빈곤을 심화시킨다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교수님은 코이카의 공적 개발 원조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셨으며, 단순 자금 지원의 평면적인 해외원조 내용이 아닌 원조의 입체적이고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었다. 두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은 기회의 땅으로, 전략적 선택이라는 입장으로 모두의 의견이 기울었다. 또한 도덕적 책임의 개념보다는 ‘투자’의 개념에 가깝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p> <p data-bbox="493 1612 1490 1910">아시아 파트에서는 “1.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동남아·인도로 옮기는 ‘공급망 재편’은 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선진국들이 직면한 심각한 인구 감소(생산가능인구 붕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외국인 노동자 및 이민자 수용’을 전면 확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첫번째 토론 주제에 대하여 나는 글로벌 기업들의 고도화된 기술을 동남아와 인도가 습득하여 제조업이 크게 발전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었고, 두번째 토론 주제에 대하여 모두가 이민자를 수용해야한다는 입장을 표했지만 교수님이 AI로 노동력이 대체 되는 미래를 설명해주시며 반대의견을 내주셨다.</p> <p data-bbox="493 1919 1490 2101">마지막으로 중국 파트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 AI의 영향인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청년 채용을 줄이고 AI를 사용하는 기업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청년을 고용하도록 강제해야 할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눴으며, 시우님은 의무적으로라도 청년을 고용하도록 해야지 청년 실업률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한 반면, 민서님은 기업의 입장에서 왜 그래야하는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의무적인 청년 고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었다.</p>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윤서희 (2331029)	<p>이번 독서토론은 이번 학기의 힐링 같은 존재였다. 평소 경제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의무적으로라도 경제 서적을 읽고자 하는 마음으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도서가 어렵진 않을까, 활동 스케줄이 부담스럽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반대로 전혀 부담없이 즐겁게 진행되었으며 좋은 새로운 인연을 쌓을 수 있어 행복했던 활동이었다.</p> <p>책은 읽을 땐 어려웠지만 함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며 더 쉽게, 다방면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토론을 통해 어려운 책을 정복해나가는 것이 뿌듯했으며,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들으며 모든 것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과 입체적인 사고방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깨달았다. 이 책을 2026을 맞이하기 전 더 빨리 읽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년도 말 2027년을 맞이하기 전에, 꼭 2027 세계대전망을 읽어보고 싶다.</p> <p>AI 및 과학기술이 무섭도록 빠르게 발전하는 현 글로벌 시대 속에서 미래를 읽고 준비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독서토론은 경제와 세계 정세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싶다.</p>
	2	함민서 (2671298)	<p><이코노미스트 2026 세계대전망>은 처음엔 단순한 미래 예측을 보여주는 책인가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세계가 어디로 흘러가지를 보여주는 책 같았다. 토론하면서 같은 기술이라도 누군가는 발전으로, 누군가는 위협으로 본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특히 AI와 체중감량약 같은 기술이 결국 인간의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다. 교수님과 조원분들의 의견을 들으며 경제 문제도 결국엔 인간의 가치관, 윤리와 연결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래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실감한 토론이었던 것 같다.</p>
	3	김시우 (2691017)	<p>첫 독서클럽 활동이었다. 평소에 잘 찾아 읽지 않는 주제의 책을 선택하게 되어 읽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책 자체의 내용도 꽤 어려웠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않았다. 그러나 팀원들과 함께 책 내용을 나누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오히려 앞으로 혼자 읽기 두려운 책들을 독서클럽을 통해 함께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이번 활동이 책을 이해하면서 읽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p> <p><이코노미스트 2026 세계대전망>은 주로 미국우선주의로부터 시작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무지했던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해 알게 되었고, 미국의 행보에 각국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특히 AI가 완전히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 체감되어 많이 놀랐는데, 다가올 AGI, 그리고 이를 넘어선 ASI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p> <p>사실 이 책은 2026년을 맞이하기 전에 읽었어야 하는 내용이다. 2026년을 살고 있음에도 책에서 언급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알지 못했으므로, 시대에 많이 뒤쳐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부터는 더 관심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겠다.</p>
	4		

